

나이지리아 농업의 현황과 시사점

1. 농업 개관

□ 경제 비중

- 농업은 GDP의 40%, 총 노동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산업임.
- 농업 부문의 GDP 기여도는 1960년대 60% 이상이었으나 1979년 이후 원유, 가스¹⁾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하락하고 있음.

<표 1> 주요 산업의 GDP 기여도 및 성장률

단위: %

구분		2009				201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GDP 기여도	농업	36.3	43.0	45.2	41.2	35.7	42.3
	원유 및 가스	18.9	16.3	15.8	14.9	18.4	15.7
성장률	GDP	5.0	7.5	7.3	7.7	7.4	7.7
	농업	5.5	5.9	5.9	6.1	5.4	5.8
	원유 및 가스	-6.4	3.9	2.5	2.3	4.1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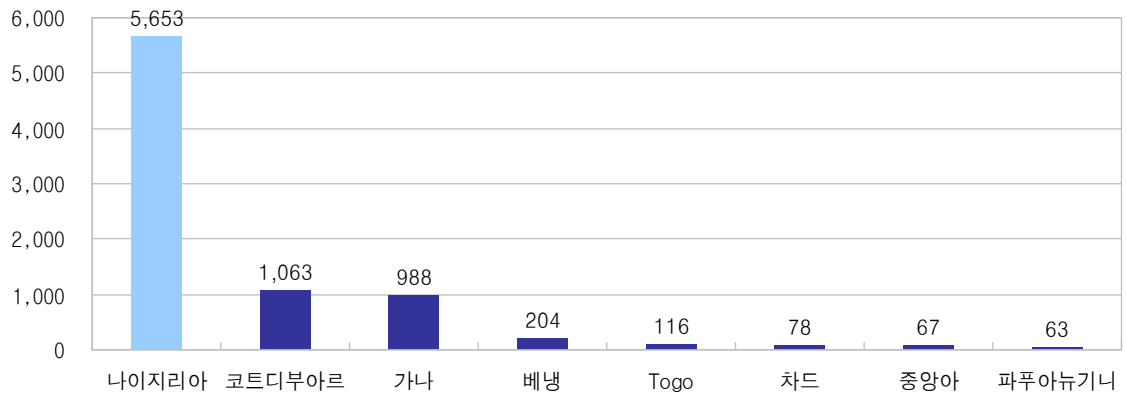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EIU에 의거 작성.

1) 2009년 기준으로 나이지리아의 원유 매장량은 372억 배럴(세계 10위), 가스 매장량은 185.4 ft^3 (세계 8위)임.

<그림 2>

세계 주요 양 생산국 현황 (2008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표 2>와 같음.

- 양은 카사바, 코코야 등과 함께 뿌리 식물로서, 생산량은 강수량 등 날씨 조건에 따라 변동 폭이 크나 최근 생산액은 꾸준히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연도별 양 생산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액(천 달러)	5,129,663	5,488,688	5,927,783	5,026,346	5,652,864
생산량(톤)	31,776,000	34,000,000	36,720,000	31,136,000	35,0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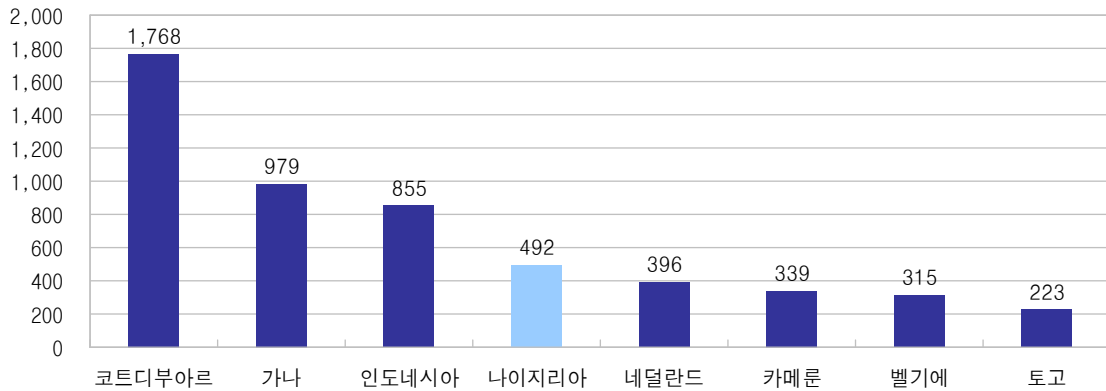
자료: <표 2>와 같음.

□ 코코아

- 코코아는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농업 부분의 주요 외화 획득원임.
 - 2008년 수출액은 코코아 원두 492배만 달러, 코코아버터 50백만 달러이었음.
- 나이지리아는 2008년을 기준으로 코트디부아르, 가나, 인도네시아에 이은 세계 4위의 코코아 원두 수출국임.

<그림 1> 세계 주요 코코아 원두 수출국 (2008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표 2>와 같음.

- 코코아는 연간 강우량이 1,000~1,500mm인 남서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최근 생산량은 연간 50만 톤 수준임.

<표 2> 나이지리아 연도별 코코아 수출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액(천 달러)	312,350	427,300	306,000	285,100	491,923
수출량(톤)	255,000	267,700	189,500	174,900	227,303
생산량(톤)	412,000	441,000	485,000	500,000	500,000

자료: <표 1>과 같음.

□ 기타 작물

- 나이지리아는 양 등 뿌리 작물 이외에도 기장, 수수, 옥수수, 쌀 등의 곡류와 콩 등의 두류 작물, 바나나와 플랜테인⁴⁾을 재배하여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음.
 - 곡류는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 두류는 건조한 사바나 지역(강우량 연 500~1,000mm)에서, 바나나와 플랜테인은 강풍이 없고 건기가 짧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음.
- 나이지리아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환금작물로는 코코아 이외에도 오일팜, 목화, 땅콩, 고무, 담배, 사탕수수 등이 있음.

4) 바나나와 비슷한 열매로 조리 방법은 채소와 비슷함.

3. 농업 발전의 장애요인

□ 영세농 위주의 경작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1위의 인구 대국(149백만 명)이나, 경작 면적은 2007년 기준 국토의 40.1%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농가가 3 에이커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임.

- 영세농 위주의 경작으로 기계화 등 농업의 현대화가 어려움.

□ 원시적 영농 형태

- 비료 가격이 비싸 비료 소비량이 2008년 기준 농경지 1ha 당 2.4kg에 불과하며, 트랙터 등 현대식 농기계 사용 비율은 2007년 기준 농경지 100km² 당 7대에 그쳐 농업의 현대화 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임.⁵⁾

□ 낙후된 관련 인프라

- 도로망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국토의 1%만이 관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관련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농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용수 공급률은 도시 지역이 75%인 반면 농촌 지역은 42%에 불과한 등 특히 농촌 지역의 인프라가 현격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임.

□ 지리 조건 변화

- 최근 일련의 기후 변화 현상으로 인해 북부 지역에서는 사막화가,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토양 침식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지리적 조건도 농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5)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기계 사용 비율은 농경지 100km² 당 1,526대임.

4. 시사점

□ 정부의 농업 육성 정책

- 나이지리아는 광대한 국토와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업 기술이 낙후되어 1970년대부터 농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략하였으며, 인구의 70% 가량이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등 농업 부문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정부는 경제의 근간인 농업의 부흥을 통한 경제 성장을 꾀하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여러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투자 및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효과는 미미하였음.
- 2000년대 이후 농업 부문의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 가스 부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농업 육성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2010년 5월에 취임한 굿럭 조나단(Goodluck Jonathan) 대통령은 새로운 농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정책에는 비료 및 농기구 수입 등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정부는 쌀 생산량을 세배로 늘리는 등 각종 농작물의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진출 기회 확대

-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지원센터(KOPIA)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최근 나이지리아에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하고 각종 관련 시설을 건설한 바 있음.
- 농업기술지원센터는 2008~09년까지 180만 달러를 투입하여 나이지리아 니제르(Niger)주와 나사라바(Nassarawa)주에 쌀의 수확, 가공, 포장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과 농기계 보관 창고를 건설하였음.

- 아울러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우리 농업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인들이 체계적 농업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음.
- 2010년 7월 농촌진흥청은 식량난을 겪는 아프리카에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앙골라와 케냐, 나이지리아 등 16개 국가와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를 발족하였음.
- 농촌진흥청은 국가별로 일대일 맞춤형 지원과 자원 공동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나이지리아 농업 부문 진출 기회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조사역 이현정(☎02-3779-5724)
E-mail : lhj0316@koreaexim.go.kr